유대근 / 정회원,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by You, Dae-geun, KIRA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및 건축도시대학원 공학석사
-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 건축시공기술사 / 서울시 강서구 건축심의위원

소통 결핍

Lack of understanding

지난 4월 17일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발표 후 5월 2일 시청 앞 광장에 촛불이 켜진지 벌써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쇠고기 수입임을 자타 모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일 뉴스와 지면을 달구는 쇠고기 관련 소식은 촛불 집회와 정부의 대응, 각 언론사의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청와대 실장과 수석의 사의 표명에 이어 6월 10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것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나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갓 100일이 지난 새 정부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커다란 과제로 다가설 것이다.

건축사의 역할에도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함은 현업에 종사하는 선, 후배 동료 건축사 모두 동감하는 바일 것이다. 건축물은 획일적인 공산품의 생산이 아닌 주문생산에 의한 제품이므로 주어진 대지의 조건이나 건축주의 요구사항,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추후에 진행될 사업계획에 이르는 전 분야의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하고 조율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물로 제작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소통이다. 건축주와 건축사, 건축사와 협력업체,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하나의 성과물을 완성시키도록 지휘하는 중심에 건축사가 서 있다. 중심에 서있는 자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곧 소통의 결핍, 프로젝트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다고 하지 않는가? 중심에 서있는 자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고 말하는 자의 표정과 행동을 읽고 판단하기 위해 눈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내려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까지 쉼 없이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창작의 과정을 혹자는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나 그러한 과정을 즐겨 업으로 삼은 건축사 회원 여러분은 어머니에 버금가는 애정으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아가니 어찌 대단하다 하지 않겠는가?

건축사의 역할은 디자인의 창작만은 아닌 것이다.
때로는 정신과 의사도 겸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관계자 회의도 주선하고 서로의 심리적 상태도 파악해가며
소통의 물고를 활짝 열어두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며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연결 시켜줄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애정으로 끌어나가야 할 프로젝트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분쟁에 감리자 입장에서 똑 부러지는 의견만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외풍과 내풍에 의해 휘둘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건축사에게는 감리자로서 위법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어 있지만 요즘같이 물가 폭등에 의한 시공비 분쟁, 공사장 주변의 주민과 발생하는 마찰 등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 발생되는 사항의 분쟁은 감리자 입장에서 쉽게 개입하기도, 타결 짓도록 유도하기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다. 상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기에도 가슴이 탄다.

서로의 분쟁은 자신의 의견을 남이 이해해주지 않고 스스로의 입장만을 반복하는데서 발생한다. 되풀이되는 대화 속에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먹먹함이 들게 마련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서운함과 결합되어 상당한 배신감에 빠지게 되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입만 열어 소리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급기야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통의 기술이다. 상대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바라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용히 들어주고 가끔은 맞장구도 쳐주며 서운한 감정을 스스로 삭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돌려 목표를 함께 할 때 비로소 자발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양보의 미덕도 발휘되는 것이다. 살을 섞고 사는 부부라도 인생의 목표가 같지 않으면 삶은 공허하기 마련아닌가?

건축사의 역할은 디자인의 창작만은 아닌 것이다. 때로는 정신과 의사도 겸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관계자 회의도 주선하고 서로의 심리적 상태도 파악해가며 소통의 물고를 활짝 열어두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며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연결 시켜줄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더욱 필요하다.

완공된 건축물을 흡족하게 사용하는 건축주와 자신이 지어낸 건축물에 자긍심을 지닐 시공자와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건축사로서의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고 이것이 다음 프로젝트를 맞이할 때 가슴속의 잔잔한 흥분으로 다가오길 기다려 본다.